

# ‘尹의 사람들’ 속속 링으로...與 ‘총선 출마자 교통정리’ 촉각

### 내달 초 개각 전망...추경호·원희룡·박민식·강승규·김은혜 등 출마 한동훈 다양한 역할 거론...당 지도부는 일단 중립적 입장 견지

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구체화 하면서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이드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국회, 대통령 순방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도 늦어도 12월 초·중순에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29일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역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박 장관은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구인 강남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상황에 따라 내각에 잔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김은혜 홍보수석 등 전직 의원 출신들도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비정치인 출신 중에서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거나 차출설의 대상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와일드카드’로 총선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례대표 1번부터 수도권 협치 출마, 선거대책위원장 기용까지 다양한 역할론이 거론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경우 경기 오산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낙점받은 뒤 선거전에서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1기’ 인사들의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당의 공천·선거 전략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의 출마 예정지로 거론되는 곳들이 국

민의힘 협력 의원의 지역구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당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장관의 거취다. 그의 행보는 당내 경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취약지’인 수도권 바람몰이를 위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 관악에 ‘자객 공천’하는 시나리오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의 경우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데다가, 최근 3선 하태경 의원이 도전장을 내면서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 성남분당을 지역구로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리 재선한 이곳은 경기도 용인·과천 등 수도권 남부 벨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라 여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고지의 하나다.

분당을 부산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장관이 출마 결심을 굳힐 경우 도전할 지역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출마 예상지로도 언급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 지도부는 최근 두 사람을 상대로 야당이 현역 의원인 수도권 동남부 지역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소재지인 경기 수원 병, ‘강남 3구 벨트’ 중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인 송파병(남인순) 등이 거론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홍문표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예산·홍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1대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이영 장관은 출마와



국민의힘 이만희 총선거획단장이 29일 국회에서 기획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내년 총선 총괄 공관위 내달 중순 출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띄우기로 했다. 당 총선거획단은 2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배 의원은 “공관위를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에서 빨리 뛰게 해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인선에 대해 ‘스케줄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좋은 분이 와서 공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최근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총선거획단이 정리한) 가산점·감점 평가지표는 공관위에 넘겨 그 기준대로 공관위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관위가 당무감사 컨텐츠와 총선거획단이 만든 틀을 조합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당 조직국의 지역 구별 판세 분석을 보고받았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현 상황을 놓고 본 것이 고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나”며 “그 지역에 어떤 후보가 가느냐에 따라 판세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외부 요인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입장을 빨리 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계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힘 ‘컷오프 대상’ 현역의원 패 들어가...영남 의원이 대다수”

### “당무감사서 46곳 ‘문제 당협’ 현역 영남, 원외 수도권이 많아”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전국 46곳의 당협위원장들이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권고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현역 의원 중에는 영남권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무감사 결과, 전국의 당협이 줄줄이 걸렸다”며 “원내 의원들도 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지역구 관리·경쟁력 평가 등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컷오프를 당에 권고한 하위 46명(22.5%)의 당협위원장에 현역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46명과 별개로 개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아 ‘문제가 있음’을 권고할 10여 명의 당협위원장 중에는 영남권 현역 의원이 다수 포

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영남권만 따로 타깃으로 당무감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영남권은 당내 의원 지역 비율대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89명 중 영남권 의원은 56명으로 62%에 달하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될 현역 의원의 대다수가 영남권일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지역별 의원 비율로 계산하면 10명 안팎의 영남권 의원이 컷오프 권고 대상이 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특히 당무감사위가 개인과 정당 간 지지율 차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 당 의원들의 비율 자체가 영남 의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무감사 결과

가 반드시 공천 탈락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컷오프 대상인 원외 당협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의석 119석 중 국민의힘이 차지한 의석은 17석에 불과해, 수도권에 원외 당협위원장이 많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서울 당협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당협위원장이 많다”면서 “경쟁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이대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당무감사위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영남권 의원들은 당무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현역 의원 교체는 뜻하는 ‘물갈이’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 초선인 홍석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상대적으로 영남 의원들이 조금 더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21대 때 43%를 물갈이했지만 잡패했다.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수사력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

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한다.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저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문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